

## 구 시모노세키 영국영사관

### 국제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

시모노세키는 정치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구미 8 개국이 영사사무소를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영사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 중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99년에는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 층은 시모노세키의 역사와 영사 사무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으며, 2 층에는 영국 전통의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영국식 티룸이 있습니다.

### 많은 영사관의 선구자

영국 외교관 어니스트 사토(1843~1929)는 교역선의 감독과 기밀문서의 전송을 위해 시모노세키 혹은 모지에 영사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1901년에 장소를 빌려 문을 열었습니다. 영사관 건물은 1906년에 완성되며, 영국 정부의 건축기사 윌리엄 코완(생몰년 불명)이 설계했습니다.

건물은 벽돌로 된 2 층 건물로 아름다운 퀸 앤 양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입구 위에 계단식 박공이 있고, 베란다에 늘어선 기둥과 하얀 돌로 장식된 아치가 눈길을 끕니다. 벽돌은 일본의 3대 벽돌 생산지 중 하나인 기시와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산지를 나타내는 X자 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내부는 천장이 높고, 문과 창문 주변은 화려한 몰딩 처리가 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벽난로와 맨틀피스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해운 사무소의 간소한 스타일과는 대조적입니다.

### 당시에도 중요했던 정보 보안 대책

영사관은 해외 영국 국민들의 연락 거점으로 온갖 종류의 정보가 이곳에서 교환되었습니다. 영사관에는 다양한 무역회사 관계자가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정보가 경쟁사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대책이 취해졌습니다. 도청을 막기 위해 두껍고 무거운 문이 설치되었고, 열쇠 구멍에는 엿보기 방지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방문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관에는 입구와 출구가 독립된 두 개의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의 장이기도 했던 영사관에서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일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곳에서의 영사관 업무는 1941 년에 폐쇄되었습니다. 1954 년에 영국 정부는 시모노세키시에 이 건물을 매각했고, 1958 년부터 1968 년까지는 경찰이 이곳에서 주재했습니다. 파출소였던 시절, 도로에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접한 외벽의 일부가 철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복구되었으며, 벽돌 색의 차이를 통해 그 변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몇십 년 동안, 이 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16 년 동안 고고학 박물관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2008 년에는 대규모 복원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건물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벽돌 이음새를 보강하는 최신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